

기획논문

환호와 배척을 넘어: 지리교육을 위한 지리학적 지정학을 찾아서*

지 상 현**

Beyond celebration and rejection: In Search of Geographical Geopolitics for Geography Education*

Sang-Hyun Chi***

요약: 지정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지정학의 귀환이나 부활이라는 표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정학의 부활을 바라보는 지리학자의 마음은 복잡하다. 지정학이 인류사회에 끼친 해악과 최근의 지정학이 추구하는 환경결정론적 단순화는 지리학자들이 지정학과 거리를 두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또한 지리적 지식이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지 않고 설명될 수 있다는 태도 역시 지리학자들이 지정학을 불신하는 이유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은 지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본 논문은 이러한 환호와 배척 사이에서 지리학자들이 지정학을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할 것인지를 탐색한다. 이를 위해 지정학의 정의와 발달 과정과 함께 지정학적 전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정학을 지리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몇 가지 함의가 도출된다. 첫째, 지리학적 지정학을 정립하고 교육하기 위해서는 비판지정학의 지향점을 적극적으로 포용해야 한다. 둘째, 한반도 안보 위주의 지정학적 상상력으로 인해 축소된 지리학의 스케일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셋째, 지정학을 지역지리를 구성하는 요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리지식의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

주요어: 지정학, 지정학의 귀환, 고전지정학, 비판지정학, 반도의 지정학

Abstract: With the growing interest in geopolitics, it is not uncommon to hear the phrase “the return or resurgence of geopolitics”. However, the resurgence of geopolitics is complicated for geographers. The harm that geopolitics has done to human societies and the environmental deterministic simplifications that recent geopolitics has pursued are important reasons why geographers have distanced themselves from geopolitics. The attitude that geographical knowledge can be explained without acquiring specialized knowledge also contributes to geographers' distrust of geopolitics. Nevertheless, it cannot be ignored that geopolitics is generating interest in geography. This paper explores how geographers view and approach geopolitics in the midst of this celebration and rejection. To do so, the definition of geopolitics, the history of geopolitics in Korea will be briefly reviewed. Several implications will be drawn from the analysis of the development of geopolitics and the Korean geopolitical tradition. First, in order to establish and teach geopolitics, we need to actively embrace the orientation of critical geopolitics. Second, we need to actively expand the scale of geography, which has been reduced by a geopolitical imagination centered on the security of Korean Peninsula. Third, we should respond to the demand for geographical knowledge by actively utilizing geopolitics as a component of regional geography.

Key words: Geopolitics, Return of geopolitics, Classical geopolitics, Critical geopolitics, Geopolitics of peninsula

* 본 논문의 초고는 2024년 6월 8일 지리환경교육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Kyung Hee University), hyungeo@khu.ac.kr

I. 지정학의 귀환

“Geopolitics is everywhere”(Nickel, 2024: 221)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듯 지정학이 돌아왔다. 지정학 관련 서적이 봇물 터지듯 출판되고 정치인과 명망가들은 지정학을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해안을 자랑하고 미래를 예측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최근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코로나로 촉발된 공급망 위기, 반도체 전쟁 등 지정학의 부활을 가능케한 전지구적 변화는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지정학의 부활 혹은 인기를 바라보는 지리학자의 입장은 복잡하다. 세계지도를 펼쳐놓고 지리의 중요성 혹은 산맥과 강의 위치, 기후와 문화, 종교를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을 보며 지리학자들은 지리의 중요성이 이제야 빛을 보고 있음에 안도와 환호를 하기도 한다. 국제정치학과 게임이론, 무역과 각종 복잡한 경제통계와 이에 대한 복잡한 대수학적 분석보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우크라이나의 평야지대를 논하고, 중동 인구를 수니파와 시아파로 양단한 후 이들의 대략적인 분포를 설명하는 방식이 더 환영받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한 지리학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반면 이러한 지정학적 설명에 대해 지리학자들은 못마땅하거나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과연 지리학에서 지정학은 지리학의 하위 학문분야로 인정받고 있는가? 지정학이 대학의 커리큘럼의 일부로 제대로 교육되고 있는가? 최근의 지정학적 논의는 지리를 지나치게 표면적이며, 단순하고 결정론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정학적 설명에서 나타난 지리적 분석이라는 것이 전문적으로 교육받지 않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쉽고 단순한 것”으로 지리를 폄하하지는 않는가? 라는 비판적인 질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지정학이 식민주의, 전체주의, 국가주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지정학자들은 지정학에 대한 열광의 대열에 뛰어드는 것에 주저하게 된다. 지리를 강조하는 지정학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학문이 지리학이라는 아이러니가 존재하는 것이다.

지리학과 지정학의 관계는 정치지리학의 초기 발달단계부터 논의되었고, 지정학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태도를 발견할 수 있다. 지정학이 전성기를 누리면서 동시에 악명을 떨치던 2차대전 시기에는 정치지리학은 학문으로,

지정학은 객관성과 검증이 부족한 이념적 선동으로 이해하려고 하였고(Bowman, 1942), 여전히 이러한 설명은 유효하다. 그러나 지정학을 정치지리학의 일부 혹은 일부까지는 아니라도 지리학의 정립 과정에서 나타난 특정시기의 사고체계나 일탈 정도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많다(Agnew, 2002; Flint, 2021). 그러나 지정학을 표방하는 수많은 책과 쏟아지는 미디어의 논평을 고려할 때, 여전히 지정학은 지리학의 일부라고 단순히 규정하기 어려운 분야이며, 또한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하는 분야임은 분명하다. 이에 지정학의 정의와 함께 지리학에서 지정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논란이 많은 지정학이라는 분야를 한국의 지리학과 지리교육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논의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II. 지정학의 정의

모든 학문을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지정학도 예외는 아니다. Agnew(2004)는 서구열강의 식민지 확보 경쟁 시기, 2차대전 전후 침략을 정당화하고 세계지배의 전략을 만들어내던 시기, 마·소의 냉전 속에서 자신들의 체제의 우수성을 설파하던 시기로 나누어, 문명지정학(civilizational), 환경결정론적 지정학(naturalized), 냉전 지정학(ideological)으로 지정학을 시기적으로 나누고 있으며, Flint(2021)는 1990년대 이후 지정학 담론 분석 위주의 비판지정학과 지정학의 객체나 대상이었던 여성, 피해자, 인간의 몸을 지정학의 주요 분석 대상으로 바라보는 페미니스트 지정학의 발달을 강조하며, 비판지정학 이전 시기의 고전지정학(classical), 비판지정학(critical), 페미니스트지정학(feminist)의 구분을 제시하고 있다. Agnew와 Flint 모두 시기에 따른 지정학의 패러다임 변화를 중심으로 지정학의 형태를 살펴보고 있다.

반면 지정학이라는 용어의 실제 사용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적어도 세 가지의 지정학에 대한 정의가 우리 주변을 떠돌고 있다. 이 세 가지 정의는 지정학의 역사 속에서 정립되고 사용된 것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미디어에서 지정학이라는 단어를 찾게 되었을 때 이 세 가지 정의 중 하나가 해당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물론 각각의 정의가 서로 완벽하게 구별되거나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정학에 대한 혼란스러운 정의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도식적이거나 교과서적 정의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정의는 수사학적 표현으로서의 지정학이다. 이러한 정의에 해당되는 지정학은 주로 미디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유가는 상승하였다”라는 표현에서 지정학은 다른 단어 즉 정치나, 혹은 국제정치로 바꾸어도 의미가 전혀 바뀌지 않는다. 여기서 지정학은 단순히 정치현상을 의미하는 단어이며, 사용의 목적은 화자의 현상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더 신랄한 표현을 쓰자면 정치나 국제정치 대신 지정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소위 ‘있어 보이는’ 표현이 가능할 뿐이다.

이러한 지정학이라는 용어의 수사학적인 사용은 1970년대 미국의 국무장관 키신저가 지정학이라는 단어를 현실 정치에서 부활시킬 때부터 활발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김동기, 2020). 냉전시기 소련-중국의 틈을 갈라놓기 위해서는 미중 관계개선이 필요하며, 사회주의 중국과의 관계개선은 기존의 국제정치 이론과 다른 논리구조를 요구했다. 즉 냉전시기 현실주의 정치이념에 기반한 국제정치라는 거대한 틀 속에서 기존과 다른 전략이 필요했고, 그 전략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단어가 필요했던 것이다. 키신저에 의해 재발견되어 사용된 지정학(geopolitics)이라는 단어는 정치학을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기존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법에 불과하다. 또한 소련-중국의 틈을 벌려 미국의 활로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이념 기반의 국제정치와는 다르지만 결국 강대국의 파워게임으로 세계를 바라본다는 점에서 키신저의 정책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일종의 새로운 것”으로 치장하지 않으면 안되었다(Howard, 1994). 물론 지정학이라는 단어가 정치학 혹은 국제정치라는 단어보다 수사학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왜 학계에서 학과나 학회 등의 제도적 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한 지정학이라는 단어가 학문적으로 탄탄한 기반을 가진 국제정치보다 더 의미있는 표현이 되는가는 이후의 연구에서 일부나마 다루어지기도 하였는데, 지정학이 정치, 이념, 국제전략을 공간화·시각화 하여 메시지나 정보를 간결 명료하게 전달하는 장점이 있다는 점(Ó Tuathail, 2002), 각 국가나 사회의 지정학적 기반, 즉 역사와 문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지정학적 전통과 조용하면서 정보 전달력을 높인다는 점(Dodds and Atkinson, 2000)이 지적되었다. 즉 지정학이 누리는 이해할 수 없는 대중적인 인기 자체를 연구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적어도 이러한 수사학적 목적의 지정학의 정의는 비교적 명료하고 단순하다.

두 번째 지정학의 정의는 국가의 위치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는 단어로 일반적으로 지정학을 상상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의이다. 지리학자들이 익숙하게 생각하는 지정학의 정의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반도의 숙명’이나 ‘~의 완충지’, ‘대륙국가’, ‘해양세력’ 등이 모두 이러한 정의의 지정학에서 나타나는 표현이다. 또한 영토의 모양이 가지는 은유가 실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바라본 초기 정치지리학의 접근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최병두, 2024).¹⁾ 이러한 지정학은 국가를 구성하는 여러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위치라는 점을 강조한다. Nicholas Spykman이 “Geography is the most fundamental factor in foreign policy because it is the most permanent”라고 하면서 대통령은 퇴임하고 심지어 독재자도 죽지만 산맥은 변치 않고 그 자리에 있다고 일갈한 것은 이러한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위치 혹은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유형의 지정학은 환경결정론에 기원을 두고 있다(지상현, 2013). 따라서 서양 근대 지리학의 태동기에 만들어진 중요한 지리적 사고방식으로 지정학을 이해할 수 있다. 라첼로부터 시작하여, 매킨더, 하우스호퍼로 이어진 이러한 고전적 지정학은 스파이크만과 키신저를 통해 지리학 외부로 확산되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지정학이라는 단어를 이 시기의 특정한 사고방식과 동일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의에 해당하는 지정학은 학술적으로는 고전지정학으로 분류된다. 최근 지정학 관련 서적의 출판이 활발해지면서 고전지정학자와 그들의 사상에 대한 글을 찾아보기는 어렵지 않다.²⁾ 매킨더, 하우스호퍼, 마한 등의 사상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정학적 서술이 전개되었다. 또한 고전지정학은 사회적 지위가 높고, 현실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한 엘리트들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이들은 자신들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원인과 그 전개과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이들은 그 원인과 전개과정을 지리에서 찾았다(지상현·플린트, 2009).

최근의 지정학에 대한 열풍도 이러한 고전지정학에 기반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등장으로 인한 미국 세계모니의 위기와 양극화된 세계가 직면할 세계전쟁류의(Allison, 2017) 논의는 고전지정학이 유행했던 시기를 다시 소환하고 있다. Mamadouh(1998)은 학계에서 비판지정학이 고전지정학을 밀어냈지만, 여전히 고전지정학은 대중에게 인기있는 주제이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고전지정학적 허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고전지정학은 객관성과 중립성이라는 학술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여전히 관심을 갖고 이해해야하는 주제가 된다. 이 지점에서 Flint(2021)가 지정학을 지리학의 일부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 따라서 정확하게 교육되고 비판되어야 한다는 점은 설득력을 갖는다.

마지막 지정학의 정의는 낯설지만 매우 중요한 정의로 지정학을 담론과 문화로 이해하는 것이다. 즉 공간과 장소의 정치적 성격을 특정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방식을 지정학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반도의 운명이라는 점을 사실이나 법칙으로 받아들이다면 이는 결정론적인 해석이겠지만, 반도의 정치적 특성을 이해하는 독특한 시각이 한국 사회에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이 마지막 정의에 속한다. 반도의 운명 혹은 반도의 숙명이라는 명제는 일종의 법칙이나 이론으로 들리지만 인터넷에서 영문으로 검색해보면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반도와 지정학을 연결하는 검색 결과를 찾아보기 어렵다. 즉 반도, 대륙, 해양, 충돌, 침략, 불안정과 같은 단어가 연결되는 방식은 한국 사회에만 존재하고 또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담론의 일종이다. Ó Tuathail(1996)은 지정학에서 담론을 특정한 말의 묶음이 의미를 가지게 되는 법칙으로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4년 9월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국가전략’세미나가 한국국방연구원 주최로 개최되었는데 실제 발표 내용은 참석해야만 알 수 있을 것이지만, 본 논문의 독자들이 위 세미나의 제목만 보더라도 어떠한 내용을 다루게 될지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즉 지정학, 위치, 국가전략, 국방이라는 단어를 토대로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이 우리의 머릿속에 일종의 법칙이나 규칙처럼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비판지정학의 정의가 널리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정의는 지리학자에게는 매우 의미있는 영역이다. 이러한 담론, 즉 말의 묶음이 의미를 갖는 방식은 우리의

지리를 해석하는 특정한 방식을 탐색하는 것이며, 이는 지리학의 역사 혹은 우리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지리적 관점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III. 한국 지정학의 역사

그렇다면 우리나라 지정학은 어떻게 형성되고 발달되어 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지정학을 어떻게 인식하고 상상해 왔는지 살펴보는 중요한 기회이며, 앞으로 어떻게 지정학을 다루어야 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작업의 일환이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Agnew(2004)는 지정학의 전개 과정을 문명 지정학(Civilizational Geopolitics), 환경결정론적 지정학(Naturalized Geopolitics), 냉전 지정학(Ideological Geopolitics)으로 정리한 바 있다. 근대 이후부터 공산권의 붕괴 이전의 지정학의 발달과정을 살펴보기에는 Agnew의 분류가 매우 유용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중 환경결정론적 지정학과 냉전지정학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근의 연구는 환경결정론적 지정학이 일본에 의해 국내에 자리잡게된 과정을 살펴보고 있으며(이진수·지상현, 2022), 교육을 통해 이러한 지정학적 사고방식이 학생들에게 주입되는 과정을 보여준다(심정보, 2015). 일본은 1차대전 이후 독일의 제국주의적 지정학을 도입하였으며, 초창기 지리학자들의 자정작용 즉 환경결정론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예단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곧 정한론과 같은 극우민족주의와 결합하면서 지정학은 제국주의적 팽창주의 정책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다(Fukushima, 1997). 또한 이어지는 만주침략,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을 통해 일본의 영토에 대한 야심과 공간적 스케일은 확대되어갔고, 이를 정당화해줄 지정학적 논리구조가 절실했다. 이에 대륙과 해양, 국가의 위치에 대한 강조로 잘 알려진 환경결정론적 지정학은 일본의 지식인들을 통해 전쟁과 팽창을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발전해 나간다. 대동아공영권은 이러한 일본 지정학의 광기가 극에 달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심정보, 2015).

이러한 일본 지정학은 우리의 지정학적 사고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의 지정학적 사고방식은 일본 지정학의 정치적 야심과 논리적 모순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를 식민화하

면서 그 정당성을 지정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였고, 이에 동원된 논리가 매킨더의 대륙과 해양의 지정학이었다(이진수·지상현, 2022).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고, 대륙과 해양 세력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반도라는 자연지리적 사실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반도라는 단어 자체도 지정학적인 것이었다. 반도라는 단어는 영어의 peninsular를 번역하기 위해 일본에서 고안한 신조어이다. 서정철(2013)은 17세기경 서양인들이 탐험을 통해 조선이 반도의 형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반면 조선은 조선 초기부터 조선의 강역을 반도 형태로 정확히 나타낸 지도를 제작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지리적 인식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반도가 의미하는 바와 동일한 상상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대륙이라는 단어도 「조선왕조 실록」에서 검색해보면 고종실록에서 실록 편찬인인 元大陸通信社 사장인 기쿠치 겐조(菊池謙讓)의 직함에서 처음 등장한다(고종실록 48권). 이전 시기에는 陸이라는 글자는 찾아볼 수 있지만 大陸은 존재하지 않는다.³⁾ 즉 대륙과 반도라는 개념 자체가 서양의 지리개념을 번역하기 위해 만들어진 말이며, 우리의 지정학적 인식의 기초가 되는 한반도의 위치에 대한 서술 자체가 일본이 한반도를 바라보는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대륙과 반도는 일본에 의해서 도입되었으며, 전자는 유라시아 대륙을 지칭하고, 후자는 반도의 열등함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도면희, 2014). 즉 도입 시기부터 반도라는 단어는 지정학적 목적과 의미로 가득찬 단어였다. 심정보(2024)는 좀 더 자세히 국토의 모양에 대한 기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추적하고 있다. 서양의 지리개념이 일본을 통해 도입되면서, 초반에는 한반도가 만주, 동해, 황해 등을 접하고 있다는 서술이 주를 이루었으나, 1930년대 이후에는 이 서술에 가치가 개입된다. 반도가 대륙과 해양 혹은 중국과 일본을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한다는 서술이 등장하며, 1940년대 태평양 전쟁 이후에는 대륙 진출을 위해 중요한 지역으로 기술된다. 즉, 반도에 추가적으로 부여된 지정학적 의미는 한반도를 침략과 제국의 영토확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때문에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반도의 지정학적 불리함과 수동성을 강조하는 ‘반도의 지정학’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결정론적 지정학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식민지 지식인을 통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내재화 되었다(이진수·지상현, 2022). 비슷한 논리의 식민사관은 해방 이후 논박과 논쟁을 통해 해소되어 나갔지만, 지정학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이어져왔다. 아래의 인용문은 심정보(2024)가 분석한 문교부 발간 1948년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의 내용이다.

조선 반도는 바다의 좋은 점과 대륙의 이로운 점을 다 맛보고 있다. 그러나, 이롭지 못한 점도 있으니, 대륙에 무슨 강대한 세력이 나타나면, 반드시 우리 나라를 노리고 탐내고, 해양 쪽에 세력이 센 나라가 일어나면 역시 우리 반도를 탐내고, 여기를 근거 삼아, 대륙에 진출하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성에 사대주의 사상, 혹은 의타성 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 이런 환경에서 생긴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시달림은 우리 민족에 대한 자연의 자극으로 생각하고, 항상 긴장하여 자주적 정신을 가지도록 하자

인용문은 반도라는 지리적 위치에 대한 일제강점기의 인식과 이에 대한 심리적 거부와 극복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대륙과 해양 세력이 충돌하는 공간으로 한반도를 상정하고, 이로 인해 사대주의와 의타성이 발현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환경결정론적 지정학의 단순화와 일반화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여 주체의 자주성을 확보하자는 능동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한반도를 환경결정론적 지정학으로 해석하는 논리구조가 해방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는 해방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적 비극이 반도의 지정학이라는 주장을 일종의 객관적인 이론이나 사실로 받아들이게 하는 맥락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해방이후의 지정학에서 대륙은 공산주의로, 해양은 자유주의로 대체되어 이해되었다. 반도를 노리는 외부세력과 이에 취약한 환경결정론적 반도의 숙명은 냉전시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왔다. 즉 Agnew(2004)가 언급한 냉전지정학은 우리나라에서는 환경결정론적 지정학과 연결되며 지속되었다.

물론 우리의 지정학적 시각이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지정학에 그대로 머물기만 한 것은 아니다. 지정학적으로 취약하고 외부 세력의 영토적 야심에 노출되어 있다는 주장은 해방 이후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 열린 국토의

잠재력 등으로 반박되기도 하였다(이진수·지상현, 2022). 즉, 한반도가 중요하니 강대국들이 욕심을 부리는 것이며,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으로 진출하기에 유리한 위치로 국가의 힘을 기르면 한반도의 부정적 지정학적 요소는 극복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2차대전 이후 이어진 냉전과 북한이라는 체제의 존재는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대립을 중심으로 지정학을 상상하는 방식을 강화시켰다. 심정보(2024)의 분석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까지 교과서 기술에서 반도의 잠재력, 민주진영의 보루로써 한반도를 규정하는 방식이 보편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중요성과 잠재력을 설파하면서 과거의 지정학을 극복하려고 하였으나,⁴⁾ 이러한 한반도 지정학의 재해석 역시 국가의 위치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환경결정론적인 해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IV. 지정학의 부활과 지리교육의 함의

환경결정론적 지정학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리학자들은 지정학과 일정한 거리를 두어왔다.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지리학적 지식에 비해, 지정학적 주장들은 그 지식의 기반이 취약하고 논리적 비약이 매우 심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Flint, 2021). 그러나 지정학 저작물이 넘쳐나고, 유명인사들이 지정학 비즈니스에 뛰어들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 중국의 부상과 미국 패권의 충돌, 코로나로 인한 세계화의 위기 이후의 국가 영토성 강화, 공급망 위기와 경제 블록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사건으로 지정학은 지리학자들의 평가와는 무관하게 세계를 바라보는 중요한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지리적 지식을 강조하는 지정학에 대한 무한한 환호 혹은 기초적 지리 지식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지정학의 태도에 반감을 가지는 것 이외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박준희(2024)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미 지정학이 2022 개정 지리 교육과정에 반영이 되었으나,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지정학은 여전히 지리학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 회색의 학문일 뿐이다. 따라서 지리교육에 지정학이 포함된 현실에서 지리학적 지정학을 찾고 교육과정에 담을 지정학의 핵심가치들을 선별해내는 작업은 시급하다.

1. 비판지정학의 함의

지정학과 지리교육에 대한 첫 번째 고민은 비판지정학의 연구성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한다. 학술적으로 비판지정학은 고전지정학을 비판하면서, 문화와 담론, 즉 한 사회에서 국가의 위치와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에 관한 특정한 사고방식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탐구로 지정학을 다시 정의하였다(지상현·플린트, 2009). 이러한 비판지정학은 지정학 관련 학계에서는 널리 받아들여지는 학술적 흐름이지만 이를 교육과정으로 연결시키기에는 어려운 지점이 존재한다. 우선 비판지정학의 핵심에 위치한 지정학적 담론이라는 개념과 담론의 해체라는 방법론부터 지리학의 교육현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누적된 비판지정학의 연구성과를 외면하고는 지리학적 지정학을 이야기할 수 없다. 즉, 학계를 지배하고 있는 지정학의 흐름과 동떨어진 지정학 교육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서 지리학자들이 취할 수 있는 입장은 비판지정학의 연구방법이나 구체적 연구성과를 소개하는 것이 아닌 비판지정학의 지향점을 교육에 반영하는 것이다. Ó Tuathail 등(1998)은 비판지정학의 지향점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모두 기존의 고전 지정학적 지향점을 반대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기존 지정학의 지향점이란 첫째 정치적 현실주의, 둘째, 엘리트의 지정학, 셋째 국내와 국외의 이분법적 구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첫째, 비판지정학자들은 정치적 현실주의를 비판한다. 즉 비판지정학자들은 국가는 본질적으로 서로 적대적이며, 국제관계에서 협력보다는 힘에 의한 지배가 본질이며, 평화는 상호의존성이 아닌 힘의 균형으로 달성된다는 정치적 현실주의 시각을 비판하고 있다(Ó Tuathail et al., 1998). 키신저가 지정학은 현실주의 정치학과 다른 무엇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지정학이라는 용어를 부활시켰지만, 키신저 지정학의 근원에는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소련을 견제하며, 이를 통해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힘의 균형을 달성하려는 시도가 자리하고 있다. 즉, 평화는 힘의 균형과 견제로 이루어지는 것이었고, 지정학은 힘의 균형과 견제를 더 잘하기 위한 통찰력의 근원이었다. Koopman et al.(2021)은 Ó Tuathail의 책 「Critical Geopolitics」 출판 25년을 기념하며 그동안의 비판지정학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을 논하고 있는데, 이 중에 비판

지정학은 정치적 현실주의를 비판하는 규범적인 학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인기있는 ‘부활한’ 지정학 서술은 대체로 고전지정학적 논리, 국제관계에서 국가는 생존을 위해 본질적으로 대립하며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을 기본 가정으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본질적으로 과거의 영광과 부동항의 확보를 옛 영토 회복을 통해 이루려고 하며, 일본은 여전히 대륙에 연결되고 싶어한다는 식의 서술이다. 그러나 비판 지정학은 이러한 본질주의에 대해 반대하며, 현실주의는 국가간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만들고 갈등을 조정하며, 이로 인해 일어난 분열과 분쟁을 지적하며 그 이론이 현실이라 주장하는 자기충족적 예언에 불과하다고 말한다(Ó Tuathail *et al.*, 1998).

또한 현실주의나 고전지정학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국가를 대상화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즉, 강대국 옆에 있는 국가나 강대국 사이에 있는 국가의 운명을 비판적으로 기술하거나 결정해버리는 서술이 만연하다는 것이다. 팀 마샬의 「지리의 힘」에서는 한국은 지리적 특성 때문에 강대국들의 경유지가 되었다고 말한다(팀 마샬, 2016). 여기서 한국을 다른 나라로 바꾸어 본다면 아마도 폴란드, 벨기에, 이라크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본다면 강대국들의 식민지 쟁탈전의 대상이 되었던 전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은 모두 ‘강대국들의 경유지’라고 말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지리적 요인 때문에 강대국들의 경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을 지배하려는 욕구와 그러한 열망을 정당화하는, 즉 강대국의 경유지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지적해내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의 교육과정에 들어갈 지정학이 어떤 지역을 지리적 요인 때문에 ~이 된다고 기술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적어도 비판지정학에서는 이러한 기술 자체가 중립적이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지정학이 고위 정책결정자나 저명한 학자에 의해 만들어지는 지식이라는 점도 비판하며, 지정학의 주체는 다양하며 지정학의 본질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주장한다. 2010년 천안함 침몰 후 이명박 대통령은 국제조사단의 결과를 발표하였고, 이는 아래의 인용문에 나타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를 절감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천안함은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되었습니다. **또 북한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하루 일을 끝내고 편안하게 휴식하고 있던 그 시간에, 한반도의 평화를 두 동강 내버렸습니다. (대통령 담화문, 2010-05-24)

여기서 “또 북한이었습니다”는 실제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강조되어 발화되었는데, 이 말은 천안함 폭침과 그 동안의 북한의 무력도발을 연결짓고 있다. KAL858, 아웅산테러, 무장공비 침투 등의 사건이 연결될 수 있는데, 이러한 사건을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또 북한이었습니다”라고 발언하고 있다. 즉 대통령의 발언과 국민들의 지정학적 이해가 연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수행된 발언이다. 장기간 지속된 북한과의 대립, 북한의 무력도발 등에 관련된 국민들의 지식, 기억, 걱정, 분노 등이 단 8글자를 통해 증폭되고 있다. 즉 평범한 사람들의 지식과 인식이 지정학에서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마지막으로 비판지정학자들은 지정학적 지식 혹은 세계에 대한 시각과 평가는 국내의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각색되고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즉 지정학은 국제적인 것에 대한 것이며, 국내의 일과 연결되지 않는 어떤 것이라는 주장을 배격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지정학적 시각은 나아가 지정학적 지식이 가치중립적이지 않다는 주장으로 발전된다. 지정학적 현실은 국내의 다양한 세력에 의해 다른 방식으로 해석된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자못 급진적인 주장을 모두 우리 교육에 담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중 귀기울여야 할 것은 바로 대립과 갈등이 아닌 평화와 공존의 시각으로 지정학을 접근해야 한다는 지점이다. 세계시민을 교육하기 위한 기본은 “세계가 서로의 영토를 넘보는 적으로 구성되고, 이러한 현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은 고도로 훈련된 일부 집단에 의해 수립되고 수행되며, 이러한 지정학적 정책 수립과정에서 개입되는 힘들은 모두 가치중립적이다”라는 오래된 지정학적 관행을 미래세대들에게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에서 시작된다. 세계는 서로 대립하기도 하지만 협력하기도 한다는 점, 세계에 대한

지식과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시민 모두 갖추어야 할 기본 양식이라는 점, 특정 집단의 세계관을 강요하려는 시각을 자유로이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정도가 비판지정학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과 관련된 지향점일 것이다.

2. 지정학과 스케일의 확장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정학은 일제에 의해 도입되고 뿌리내려졌으며, 과학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유지되어 왔다. 해방 이후 극복의 움직임을 보였지만 한반도의 분단과 냉전, 북한이라는 체제의 지속으로 인해 큰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하였다. 이러한 고전지정학은 반도의 숙명 혹은 한반도의 지정학이라는 담론으로 구체화되었고, 이는 우리의 지리적 시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지상현, 2013). 즉 지정학적 담론이 한반도에 집중되면서, 지리적 지식 역시 한반도에 국한되는 약영향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한 우리의 지리적 스케일은 한중일이라는 표현에 압축되어 나타난다. 매일매일 미디어에 노출되는 세계에 대한 시시콜콜한 지식은 대부분 중국과 일본에 관한 것이다.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한 내용도 많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대부분 특정 주제에 관한 단보 수준의 것이다. 반면 우리에게 그러한 보도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즉 공간적 맥락 속에서 행간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 제3의 무역상대국인 베트남에 대한 언론 보도 중 삼성의 투자에 대한 단순 보도, 다낭 등 관광지와 관련된 내용 이외의 내용이 얼마나 되는가를 돌아보면 심각한 수준이다. 지리학계에서는 베트남의 농업(조영국, 2013; 김이재, 2015), 경제와 직접투자(이승철, 2007; 구양미, 2017), 이주(정수열, 2013) 등의 연구가 이어지고 있으나, 미디어에서는 우리나라 제3의 무역상대국의 정치체제, 남북 격차, 산업의 변화와 국경문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지리 지식은 다루어지지 않는다.⁵⁾ 지금 이 시간에도 언론에는 중국과 일본에 대한 가십성 기사들이 넘쳐난다. 반면 교역순위 규모 10위 이내의 국가인 인도와 멕시코에 대한 지리적 지식은 각각 힌두교와 소, 축구와 갭단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단순화와 과장된 표현이라고 비판받을 수는 있지만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발언이라고 지적하긴 어려울 것이다.

지리적 스케일이 한반도와 한중일로 국한되다보니,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한 관심과 정보가 적어지고, 이에 대한 지리적 지식은 처음 접하거나 외워야 하는 고통스러운 일이 되었다. 세계에 대한 지리적 정보를 제공하는 거의 유일한 과목인 세계지리 역시 짧은 시간내에 전세계를 다룬다보니, 자연, 인문으로 세계를 훑어보고, 각 대륙별로 대지형, 대기후, 주요 산업이나 쟁점 위주로 정리하고 있다. 교사도 학생도 숨가쁘고, 세계에 대한 추상적 이해와 지식의 암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즉 교과서 너머의 세계지리 교육, 교실을 벗어난 세계시민 교육은 요원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세계지리에 대한 지적 욕구가 폭발하고 있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 늘 가본 곳이 아닌 새로운 곳을 여행하기 위해 지리적 지식이 요구되고 있으며,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는 이러한 지적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정학에 대한 열망은 여러 방향으로 평가가 가능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지리적 상상력을 넓히고 세계지리에 대한 교육 필요성을 보여주는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전국지리교사모임, 2024). 이미 비 지리학자들에 의해 세계지리 교육은 시작되고 있음을 서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정호, 2023; 오태민, 2023). 또한 주제 중심이나 일반인의 지리 지식에 대한 탐색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방식으로 세계지리에 접근하는 지리학자들의 도전도 이어지고 있다(조철기, 2023; 강이석, 2024; 이동민, 2023). 이러한 노력들은 한반도를 강조하는 지정학적 사고방식의 과잉이 불러온 스케일의 축소를 다시 확장시키는 중요한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3. 지리학적 지정학을 찾아서

이러한 세계지리 교육의 필요성과 그 방법 역시 지정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최근 지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은 기후 위기로 표현되는 환경의 강조이며, 이러한 주제를 넓혀보면 자연, 즉 물질에 대한 강조로 이어진다. 또한 자연과 인문의 통합으로 이해해볼 수도 있다. 지정학 역시 이러한 기후변화를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다. 무엇보다 지정학은 결국 기후변화가 초래할지 모르는 파국적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Kaplan and Rieff, 2000). 즉 기후변화로 세계가 얼마나 불안정해지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기후변화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 혹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기후변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정학이 기후변화 영향의 일종의 ‘최종국면’을 이야기하거나 세계의 불안정, 영토-국가 체계의 혼란을 이야기하고 있어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 이외에 지정학의 이야기는 지역지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다. 지리학 전공자들이 이해하고 있듯, 1990년대 이후 대학에서 계통지리 교육이 강조되었고, 지역지리의 입지는 좁아져왔다. 지역지리는 인기 없거나 방법론적 발전이 없는 학문분야로 여겨졌고, 특별한 준비나 공부 없이 할 수 있는 분야로 치부되었다.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차례의 시도가 있었다(김병연, 2017). 지역지리의 필요성에 반기를 들기 어렵지만, 지역지리를 어떻게 잘 수행할 수 있는가는 어려운 문제였다. 하트슨의 지역의 종합이라는 개념은 선언적 의미로 훌륭하고, 지지의 작성에 있어서 기초가 되었지만 여전히 부분을 종합하여 어떻게 전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는 난제로 남아있다(권정화, 2001; 조성욱, 2018).

최근 지정학 열풍이 마냥 즐거운 현상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지정학을 지역지리를 짜임새 있게 구성하는 개념, 자연과 인문지리를 종합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길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우리나라를 휩쓴 「지리의 힘」류의 지정학 서적들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과연 이러한 서적들이 지정학적으로 새로운 통찰이나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지리학자들의 판단은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여전히 이러한 서적들은 대지형과 대기후라는 지리적 요인을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이야기의 힘이다. 즉 대지형 정도를 설명하고 나머지의 역사, 정치, 경제 등의 요소들을 국가의 위치나 대지형의 분포에 맞게 끼워넣고 있다. 물론 이러한 작업의 완성도가 높아 독자들을 강하게 유인하고 있겠지만, 사실 새로운 지정학적 통찰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대지형에 근거한 지정학적 기술방식은 1900년대 초반 만들어져 2차대전 시기 완성된 형태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즉 현재의 지정학 관련 열풍은 세계의 복잡한 현상을 지정학이라는 단순화로 포장해낸 이야기에 대한 환호에 가깝다.

이러한 점에서 지리학자들은 지정학 유명 작가들보다 더 깊은 통찰력과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자원, 에너지, 환경, 무역, 정치적 안정, 갈등은 모두 공간과 장소를 통해

종합되고 연결되어 있다. 지리학, 특히 지역지리는 이러한 작업을 해왔고, 잘 해내기를 요구받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부족했는지 모른다. 현재 이러한 작업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졌으며, 지정학적 접근 혹은 지정학적 기술방식은 지역지리를 재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인일 것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 이후 전기자동차 시장의 활성화와 주식투자 열풍이 불면서 많은 사람들이 2차전지 관련 주식에 투자하고 주식 차트를 보며 일희일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차전지 관련 상장사 시가총액은 삼성전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경향신문, 2023). 2차전지 핵심 광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리튬이다. 전 세계는 리튬 채굴을 위해 달려들고 있고, 자원민족주의도 나타나고 있으며, 리튬 확보를 위한 강대국의 갈등도 진행 중이다. 지리학에서 리튬에 접근한다면 리튬의 채굴과 환경오염, 공동체, 수출입과 공급망, 양극재와 음극재로 대표되는 2차전지 제조업, 전기자동차 회사와 배터리 제조업체의 합종연횡과 입지 전략, 한중일 기업이 선도하는 배터리 제조업, 리튬 확보를 위한 국가적 경쟁과 대립 등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며, 이를 관통하는 서술방식 중 하나로 유력한 것은 바로 지정학이다. 자원에 관한 연구가 드물어진 지리학계에서 리튬에 대한 연구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안타까워 꺼낸 사례이지만, 비단 리튬뿐만이 아니다. 석유, RE100, 해상물류, 반도체 전쟁, 애플레이션 모두 최근 지정학적인 해석을 기반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며, 그 이야기는 지리학적 통찰과 서술에 기반한다.

V. 지정학 활용하기

지리학자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건 지정학적 스토리텔링은 출판계와 미디어에서 인기있는 상품이 되었다. 지리학자들은 지정학에 대해서 스스로 거리를 두거나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왔고, 이는 학계가 당연히 가져야 할 사례 깊은 행동이었다. 그러나 지리학 이외의 분야에서 지정학을 언급하는 방식은 매우 자유롭다. 이는 지정학에 대한 반성이나 과거 지정학이 초래한 비극에 대해서 지리학자들이 가지는 부담감을 갖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유행하는 지정학적 서술은 과거 지정학의 논리구조를 따른다기보다는 지정학적 서술이 제공해주는 장점, 즉 이야기의 골격을 만들어주고 흥미를 유발시키는 장점에

크게 기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리학은 과거에 대한 반성이나, 환호와 배척이라는 이분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가 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 지정학의 논리구조를 충분히 비판하고 경고하되 몇 가지 부분을 충분히 강조하면서 지리학적 지정학을 주장해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지정학은 결정론적으로 해석되거나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한 국가나 사회에서 긴 역사를 거치며 생성된 세계를 이해하는 시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지정학적 시각이 사라지고 새로운 시각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반도, 한반도에 대한 지정학적 강조로 인해 우리의 지정학적 상상력과 스케일이 축소되었고, 지리적 지식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고민이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국력의 상승과 세계에 대한 정보를 주체적으로 탐색하는 세계시민의 양성을 위해서 지리교육은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셋째, 최근의 지정학에 대한 열풍은 지정학적 논리구조에 대한 열광이 아니라 변화하는 세계의 복잡한 일들을 지정학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성공적으로 서술한 이야기꾼들에 대한 찬사라는 것이다. 최근 급변하고 있는 세계, 특히 기후변화와 지정학적 불안정성과 관련된 이야기는 지리학자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리학자들이 시작해야 할 것은 지정학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다. 지정학에 대한 거부와 의구심을 떨쳐내기 위해서 인식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정학은 지리학의 일부로 성장해왔으며,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둘째,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비판하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집단 역시 지리학계이다. 셋째, 지리학자들은 지정학을 이해하기 위한 지식을 이미 충분히 습득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지정학의 역사, 우리나라의 지정학의 특징, 지정학을 이용하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지리학계의 역사 정도이다. 우리나라 지정학에 대한 교육과 함께, 지정학에 대한 지리학계의 우려가 사라지고 인정과 비판이라는 입장이 정리된다면 지정학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지정학에 대한 막연한 환호나 거부를 넘어 건강한 지리학적 지정학의 부활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주

- 1) 축수지대와 같은 표현이 이에 해당한다(최병두, 2024: 91).
- 2) 이 시기의 지정학에 대한 상세한 서술은 김동기(2022)에 잘 정리되어 있으며, 이후의 비판지정학과 비교서술은 지상현·플린트(2009)를 참조.
- 3) 비슷하게 해양(海洋)의 경우 대양(大洋)과 함께 일부 사용된 것으로 보이거나 원문의 맥락을 전문적으로 살펴봐야 하므로 언급하지 않았음.
- 4) 경의선 동해선의 복구와 시베리아횡단 철도와의 연결과 같은 ‘대륙 연결’프로젝트, 90년대 유행했던 BESETO(Beijing-Seoul-Tokyo) 프로젝트 등이 이에 해당한다.
- 5) 이러한 특정 지역에 대한 홀대를 김이재(2021)은 국가주도의 사회와 교육과정 이면의 서구중심주의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강이석, 2024, 하마터면 지리도 모르고 세계여행할 뻔했다, 북트리거.
- 구양미, 2017,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와 베트남의 산업구조 및 지역 변화”, 대한지리학회지, 52(4), 435-455.
- 권정화, 2001, “부분과 전체-근대 지역지리 방법론의 고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7(4), 81-92.
- 김동기, 2020, 지정학의 힘: 시파워와 랜드파워의 세계사, 아카넷, 서울.
- 김병연, 2017, “한국지리에서 지역지리의 위상에 대한 고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3(4), 679-693.
- 김이재, 2015, “공정여행과 공정무역을 연계하는 커피의 가능성 탐색-베트남 중부의 커피공간을 중심으로”, 경관과 지리, 25(4), 87-101.
- 김이재, 2021, “한국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동남아 홀대 현상과 원인 분석 - 국가주도 사회와 교육과정의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9(2), 33-52.
- 도면희, 2014, “조선총독부의 문화 정책과 한국사 구성 체계: 조선반도사와 조선사의 길잡이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222, 67-97.
- 박정호, 2023, 세계지도를 펼치면 돈의 흐름이 보인다, 반니.
- 박준희, 2024, “고교학점제를 대비한 지정학 수업프로그램의 지리교육적 함의”, 한국사회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24, 67-84.
- 서정철, 2013, “서양 고지도를 통하여 본 동해명칭을 둘러싼

- 한일 간의 경쟁”, 한국고지도연구, 5(2), 5-17.
- 심정보, 2015, “태평양전쟁기의 일본 지정학 사상과 국민학교 지리교육”,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3(3), 1-21.
- 심정보, 2024, “해방 전후 지리교과서에 수록된 국토 위치의 표상”,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32(1), 193-213.
- 오태민, 2023,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 거인의 정원
- 이동민, 2023, 기후로 다시 읽는 세계사, 갈매나무.
- 이승철, 2007, “전환경제하의 해외직접투자기업의 가치사슬과 네트워크: 대베트남 한국섬유·의류산업 해외직접투자 사례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0(2), 93-115.
- 이진수·지상현, 2022, “포스트식민 한국에서 환경결정론적 지정학의 전유-초기 현대 지리학에서 ‘한국의 위치’의 사례”, 대한지리학회지, 57(5), 437-450.
- 전국지리교사모임, 2023, 나의 첫 지정학 수업, 탐.
- 정수열, 2013, “계획 이주와 자발적 이주 간 연계-베트남 닥락성 커피 생산에서 이주의 역할”,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6(3), 344-358.
- 조성욱, 2018, “지역지리교육의 개념 논의와 방향 모색”,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4(4), 542-556.
- 조영국, 2013, “베트남 닥락성(Dak Lak Province)에서의 커피생산지리 변화과정과 그 배경-변경적 특성, 전환경제적 특성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6(3), 323-343.
- 조철기, 2023, 기호와 탐닉의 음식으로 본 지리, 따비.
- 지상현, 2013, “반도의 숙명: 환경결정론적 지정학에 대한 비판적 검증”, 국토지리학회지, 47(3), 291-301.
- 지상현·콜린 플린트, 2009, “지정학의 재발견과 비판적 재구성: 비판지정학”, 공간과 사회, 31, 160-199.
- 최병두, 2024, 정치지리학, 한울아카데미, 서울.
- 팀 마샬, 2016, 지리의 힘, 사이, 서울.
- Agnew, J., 2002, *Making political geography*,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 Agnew, J., 2004, *Geopolitics: Re-visioning world politics*, Routledge, New York.
- Allison, G., 2017, *Destined for War: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s Trap*, Houghton Mifflin Harcourt Publishing Company, New York.
- Bowman, I., 1942, Geography vs. geopolitics. *Geographical review*, 32(4), 646-658.
- Dodds, K. and Atkinson, D., 2000, *Geopolitical traditions. A Century of geopolitical thought*, Routledge, New York.
- Flint, C., 2021, *Introduction to geopolitics*. Routledge, New York.
- Fukushima, Y., 1997, Japanese geopolitics and its background: what is the real legacy of the past? *Political Geography*, 16(5), 407-421.
- Howard, M., 1994, The World According to Henry: From Metternich to Me, *Foreign Affairs*, 73, 132-140.
- Kaplan, R. and Rieff, D., 2000, The coming anarchy, *World Policy Journal*, 17(2), 95-96.
- Koopman, S., Dalby, S., Megoran, N., Sharp, J., Kearns, G., Squire, R., Jeffrey, A., Squire, V., and Toal, G., 2021, Critical Geopolitics/critical geopolitics 25 years on. *Political geography*, 90, 1-9.
- Mamadouh, V., 1998, Geopolitics in the nineties: one flag, many meanings, *GeoJournal*, 46, 237-253.
- Nickel, C., 2024, What do we talk about when we talk about the ‘return’ of geopolitics?. *International Affairs*, 100(1), 221-239.
- Ó Tuathail, G. 2002, Postmodern Geopolitics?: The modern geopolitical imagination and beyond. In *Rethinking geopolitics* (pp. 28-50). Routledge.
- Ó Tuathail, G., 1996, *Critical Geopolitic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MN.
- Ó Tuathail, G., Dalby, S., and Routledge, P., 1998, *The geopolitics reader*. Psychology Press.
- [언론기사]
- 경향신문, 2023, <https://www.khan.co.kr/economy/finance/article/202312312109035>, accessed 2024.11.01.
- 접 수 일 : 2024. 11. 07
- 수 정 일 : 2024. 11. 17
- 게재확정일 : 2024. 11. 18
- 교신: 지상현, 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이과대학 지리학과 교수 (hyungeo@khu.ac.kr, 02-961-0459)
- Correspondence: Sang-Hyun Chi, hyungeo@khu.ac.kr